

教授生活를 통해서 본 美國 大學

趙 昌 鉉
(漢陽大 行政學科)

우리나라의 대입학력고사 성적 250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專門職 요원으로 배출해 내는 美國의 制度가 不實醫師, 不實辯護士, 不實教授들을 만들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무엇인지 모르게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필자는 美國 大學에서의 교수 경험을 통해, 一流病의 막순환을 단절시키고 능력 있는 인재육 양성해 내는 데는 우리 대학 자체의 반성과 노력이 그 관건이 될을 확인하게 되었다.

1. 他山之石을 위한 辨

필자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만 16년간 美國의 大學에서 教授生活를 하다가 1981년 가을 학기에 귀국하여 지금까지 市內의 한 私立大學校에서 行政學을 강의하고 있다. 여기에 필자의 조그마한 體驗記를 쓰는 뜻은 결코 필자가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도 또는 미국의 教授方法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 사람의 正直한 體驗記가 이곳에서 필자와 같이 後學을 길러 내기 위해서 애쓰는 先輩, 同學 및 後輩들에게 하나의 他山之石이 되었으면 하는 編輯者의 뜻에 동감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늘 우리 주변에 經驗的 수기가 부족한 것을 안타까와 해 오던 터였다. 필자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具體的인 것보다는 抽象的인 것을, 體驗的인 것보다는 哲學的인 것을 選好한다. 일반화된 理論은 論理가 정연해서 이해하기 쉽고 이해가 쉬우니 기억이 잘 된다. 구체적인 事例는 복잡한 내용과 주제와 연

계성이 부족한 자질구래한 사실들로 파악서 읽는데 부담이 되고 읽고 난 후에도 기억이 잘 안 되고 소화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抽象化된 理論을 좋아한다. 우리 教授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學生들도 마찬가지다. 事例를 研究하라고 하면 딱 질색이라는 인상을 한다. 마치 학분적으로 價値가 없는 것을 혹시 교수가 잘못 생각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귀국한 지 5년이 되어 오는데 아직도 자신 있게 학생들에게 사례연구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이나 자연 필자 自身도 모든 다른 同僚教授들이 하는 데로 一般理論을 가르치고 그것에 관해서 글을 쓰기만 좋아한다. 그것은 쉽고 安全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그것을 受容하는 쪽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經驗的·體驗的 수기를 쓰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필자는 그러한 수기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필자가 이런 글을 쓰면

서 왜 그렇게 써야 있는지를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케헨적 수기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언뜻 보던 自益自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을 臨盆하기 전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필자가 첫 講壇에 섰을 때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效率的이나 하는 데 대해 특별한 講義나 訓練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필자가 첫 강의에 설 때까지는 필자가 학생으로 있으면서 강의를 받았던 데의 경험을 토대로 단순히 그 役割만 바꾼 것뿐이다. 지금까지 학생이었던 역할에서 교수라는 역할로 필자의 役割을 바꾼 것뿐이라는 말이다. 즉 필자는 그때까지 필자를 가르쳐 주신 스승들을 필자가 교수가 돼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2. 教授는 演出家(俳優가 아닌)

그러니까 필자에게 가장 효과적이던 교수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필자가 韓國에서 大學 4년간에 배운 教授님들의 강의방법은 고사하고 美國에 가서 大學院 生活 7년 동안 學部(先修科目)·大學院 學點 모두 78학점을 따면서 필자는 수많은 교수 밑에서 여러 가지의 교수방법에 의해 가르칠을 받았다.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해 본다. 그 첫째는 데게 구라파에서 移民을 온 교수들에 의해 踏襲되는 講義式 教授方法과 다른 하나는 주로 美國本土인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세미나식(이것은 적당한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편의상 붙인 것으로 필자 자신도 그 이름에 만족치 않음) 教授方法이었다. 말이 講義式 또는 세미나식 강의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수의 나이·경험·科目·內容·학생들의 質 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단 두 가지 類型으로 나뉘어서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無理가 따르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우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놓고 필요하면 더 具體的인 說明으로 들어가기로 하겠다.

먼저 세미나식이라고 한 이 교수방법은 한마디로 學生과 教授가 共同으로 운영해 나가는 교

수 방식인데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變形(variation)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단 한만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를 본 적이 없는 것은 모든 교수가 조금씩은 다 다르게 교수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세미나式 方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講壇의 內容과 性格에 따라서 더 組織的이기도 하고 덜 조직적이기도 하다. 사실 非組織적으로 조직적이다 또는 비조직적이다 하는 것은 그 강의의 成果(performance)를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는 區別이 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정한 結果를 유도하기 위한 目的의 達成이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강사가 조직적이었다 혹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극히 非組織적인 인상이지 결코 강의의 목적을 흐려 가면서까지 非組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강사는 責任 있는 教授로서는 許容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비조직적으로 보인 강좌도 다 조직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 非組織적으로 보이는 講壇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 역시 가르치는 科目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른바 자연과학이 아닌 社會科學으로서의 특히 行政學이나 政治學을 강의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非組織的 세미나式 講壇나 한다면 한마디로 이것은 학생이 공부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中間考查나 學期末考查에 가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每週 강의 때마다 알아보는 制度의 講壇라 할 수 있겠다. 이 제도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 學期에 있어서 자기가 읽어야 할 冊들과 論文들이 무엇인가를 開學劈頭에 문명히 해서 한 학기가 지나가면서 體系적으로 그리고 漸增적으로 主題에 관련된 책들과 논문들을 읽게 만드는 것이다. 읽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教授의 중요한 任務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일 간단히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짧은 퀴즈를 통한 간이시험이다. 이것은 採點의 번거러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하여금 읽어야 할 책과 논문의 內容을 확인하게 하는 간략한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로 이러한 非組織的인 세미나式 講壇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主題에 대한 自己調査(research)의 結果를 발표케 한다. 매주 일정한

숫자의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題目에 대해서 研究한 결과를 보고케 하는 制度다. 이러한 제목의 選定過程은 교수의 事前承認을 일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研究題目選定이 강좌의 目的에서 이탈함이 없도록 하는 調整과 牽制의 役割을 한다. 특히 학생들의 發表는 되도록이면 그 내용을 사전에 복사해서 전 클래스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報告를 다소라도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고 입하며 또 發表 후에도 그 내용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한 學期를 통해서 만약에 40명의 학생이 모두 報告를 한다면 학생 한 사람당 40개의 작은 제목에 대한 研究結果에 관한 知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세째로 중요한 세미나식 講座의 要素는 教授의 役割이다. 교수는 먼저 학생들의 學習日錄을 작성하여 그 강좌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적절한 文獻을 소개한 다음에 학생들의 보고서에 문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는지의 點點을 통해 세미나의 흐름의 方向을 제시하고 調整한다. 교수는 물론 강좌를 처음부터 이끌어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문헌에 근거한 안내를 통해서 이 강좌중에 問題點이나 쟁點이 있는지를 제시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나 쟁점에 대해서만 학생들의 研究課題가 주어져야 한다. 아무런 異論이 없는 題目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퀴즈를 통한 討論의 확인만으로서 만족하고 말 씩이 있는 것(controversial issue)에 대해서만 거기에 적절한 책과 논문의 독서를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해 나간다.

비째로는 그것이 비록 세미나식 講座가 아니 더라도 꼭 요구되는 텀 케이퍼(term paper)의 제출이다. 학점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청강생 은 제외,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 청강생이 매 강 좌마다 자리가 있는 한 허용된다) 일정한 基準 에 따른 텀 케이퍼의 제출이 義務化되어 있다. 이것은 대개 200單語 정도가 打字된 15~20枚 가량의 報告書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리 포트’로 불리우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小論文 이다. 나는 지난 5년간 술한 리포트를 받아 읽 었지만 내가 미국에서 學生 때 썼던, 또 教授로서 받아보던 그런 리포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여기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題目을 자기 마음대로 경제해서 쓴다. 따라서 그 내용도 전혀 사전에 교수의 承認을 안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받아 본 리포트란 주로 교과서에서 읽을 수 있는 內容을 서술한 것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이 論文의 분야야말로 매우 중요한 教授方法 의 하나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 어도 그것을 잘 表現할 수 없으면 그것은 죽은 知識이다. 또한 그런 지식의 所有與否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學問的 知識이란 글 로 표현하는 지식을 만든다. 따라서 쓰는 것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이란 그 이름이야 선풍 科學이란 말 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술을 떠나서는 생각 할 수 없는 학문이어서 글로 쓸 수 있는 能力이 야말로 매우 중요한 教育의 對象이 된다. 흔히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지식은 많은데 말로 表現 하지도 못하고 글로 쓰지도 못하는 이들을 많이 본다. 말이나 글이 두 가지 중 하나는 自由自 在로 할 수 있는 能力을 가져야 하겠다. 이런 훈련이 잘 되지 못해 가지고서야 무슨 근거로 어떤 사람이 지식이고 없음을 판단하랴. 과거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되어 온 各種試驗에 있 어서의 이른바 客觀式 試驗問題의 出題方式이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쓰고 말은 잘할 필요를 많이 축소시켜 온 것이 사실이기 는 해도 아직은 우리가 공부하는 人文社會科學은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쓸 수 있는 能力이 부족할 때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 學問의 存在 自體 를 제대로 照明하지 못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통해 학생은 주어진 讀點을 기초로 그 강좌의 학문적 軌跡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주어진 문제점이나 쟁점에 대한 연구로 그 강좌의 現주소를 파악하게 되며, 報告 書 즉 텀 케이퍼 作成을 통해서 자기의 知識 을 책임지고 발표해 보는 能力을 함양하게 된다. 이것이 세미나식 教授法의 內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면 教授의 役割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든 일은 학생들만이 하는 듯한 인상을 줄런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教授의 責任은 순수한 講義式으로 일관된 교수방법 때보다 더 무겁고 시간도 더 많이 소비된다. 그것은 첫째 學生 하나하나의 學習的 進歩를 면밀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成功과 失敗의 關鍵은 학기초에 배부하는 실러버스(syllabus)의 作成에 달려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全 學期를 통한 講義計劃잡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이 잘 되었으면 그 강좌는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그 강좌는 屢次 失敗로 끝나기 쉽다. 그것은 실러버스만 한 다더로 말해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것인데 연극이 성공하려면 시나리오가 좋고 불 일이다. 교수는 이러한 시나리오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演出까지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演出가가 經驗이 부족하고 俳優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어설픈 연극으로 끝나고 만다. 문제는 이 연극이나 영화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전체 배우가 모두 높은 意慾과 熱意를 가지고 자기 任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動機를 부여하고 흥(?)이 나도록 하는 것은 演出가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講義도 마찬가지다. 학생은 영화나 연극의 관람자가 아니고 영화나 연극의 배우이며 교수는 演出가로 감독이다. 여기서 교수의 役割의 중요성이 제삼 강조되는 것이다.

어떻든 교수는 강좌를 통해서 학생의 成就를 評價하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의 교수의 역할이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客觀的 基準과 資料가 부족한 데 더욱 그러하다. 설혹 客觀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이 있다손 치더라도 評價란 그렇게 유쾌한 작업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評價의 課業을 되도록이면 간편화하고 단일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西歐社會에서는 評價를 매우 신중하고 책임 있게 履行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에 個人的 感情은 물론이고 實績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개입할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그래서 試驗을 한번보다는 여러 차례 치도록 권유하고, 試驗의 方法도 主

觀的인 것과 客觀的인 것을 混用한다. 퀴즈와 텀 페이지 그리고 講義時間中 討議의 參與度와 貢獻度 등 다양하고 多元的인 평가 기준에 의해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닌 不可抗力的인 이유에서라면 최종 시험에서의 缺席도 추가시험이란 救濟手段을 통해서 재평가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 평가의 목적은 누구를 얼마나 떨어뜨리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이 합격시키느냐에 있다. 결국 評價란 教育의 또 하나의 手段이요 教育 그 자체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3. 教授時間 너무 많아

위에서 알아 본 教授方法대로 하려고 하면 3시간짜리 講義 하나를 제대로 하자면 적어도 9시간 내지는 12시간이 소요된다. 즉 강좌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1시간의 강의에 적어도 2시간 준비를 해야 하니까 3시간짜리 강좌이면 6시간이 사전준비로 소요되고 3시간 강좌를 하고 또 3시간은 評價하는 데, 즉 퀴즈나 보고서문 읽고 평가하는 데 所費되므로 통틀어 9시간 내지 12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필자는 美國에서 教授하는 동안 한 學期에 2과목 이상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즉 2과목이던 6시간을 講義하는데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도 최고가 12시간 최저가 6시간으로 되어 있고 12시간 가르치는 경우도 講義科目은 세 과목을 넘지 않는다. 대개 그 과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수는 비록 9시간 내지 12시간이나 되나 과목수는 2과목에 그치는 수가 많다. 그것은 그만큼 한 과목을 더 가르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美國의 경우 Ph. D.를 주는 大學은 평균 教授義務時間이 6시간, 석사를 주는 대학은 9시간, 학사만 주는 대학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예외는 얼마든지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碩士 및 博士課程의 學生數에 따라서 의무 교수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즉 Ph. D. 학생 네 명을 지도하면 과목을 하나 배 준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과목을 가르치고 Ph. D. 학생 넷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 教授는 그 학기의

義務時間을 충족시킨다. 이처럼 교수시간을 정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講義에 그것도 大學院 중심의 教育으로 음악·장수·목·더 많은 준비 시간이 所要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온 매우 實用的인 措置이다. 或者는 이렇게 自由時間(?)이 많으면 大學教授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짚을 수도 있겠으나 美國의 大學教授란 비록 泰뉴어(tenure)를 받은 뒤에도 研究發表가 없는 교수는 마치 配役을 못 받는 老俳優처럼 처량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研究論文發表를 준비하느라 그 많은 自由時間(?)을 研究 이외에 다른 用途로 쓸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필자는 現在 여기에 온 이후로 外部講座는 꼭 1년 해 본 것이 고작이고 지금 4년째 일체 外部講座를 맡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만도 5과목(14시간)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기 欺瞞이요 학생에 대한 不充實이다. 이 14시간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 학교에 있는 전체 教授가 다 갖는 最低 義務時間이다. 필자는 다른 학교의 平均 教授時間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필자가 짐작하기로는 우리나라 교수들의 平均 講義時間이 12시간(4과목)이 아닌가 싶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나라 大學의 將來를 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不實教育이 되기 쉬기 때문이다. 大學教育이란 것이 私企業體와 달라서 貸借對照表에 의한 損益計算을 計量的으로 따지지는 못한다고 해도 平均 12시간(4과목)씩 가르치는 교수가 아무리 양심껏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그 內容이 不實한 수박에 없음은 자명하다. 물론 自然科學이나 工科系統은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나 人文社會科學과 같이 학과목의 內容이 時間과 空間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많은 새로운 文獻을 계속적으로 接受·理解해야 할 學問分野에 있어서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內實 있게 강의할 수도 없고 또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학생을 評價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교수가 해야 할 教授 이외의 허다한 義務(學生指導, 各種 會議·委員會·講演·學會 참석)時間을 빼고 나면 강의준비나 評價에 할애한 시간이 동

이 나고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形式은 갖추어야 하고 義務는 수행해야 하니 희생당하는 것은 教育의 內容이다. 그것이 강의가 되었건 평가가 되었건 또는 相談이 되었건 絕對量에서 그 많은 義務時間을 빼고 나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처럼 많은 教授時間의 配定은 教授要員의 不足에서 나온 간단한 귀결이다. 그러던 교수요원의 基本的 需要는 어떻게 算定하는가? 나는 우리나라 大學教育規定에 學生 몇 명에 教授 한 명을 採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내가 가르치고 있었던 美國의 한 州의 大學教育法은 大學의 種類에 따라 教授要員의 需要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博士學位를 주는 大學은 學生 10명에 教授 한 명으로 되어 있다. 특히 學生의 數를 計算하는 때는 학생의 머리수를 계산하지 않고 한 학생이 4개 과목을 登錄할 경우 그 학생을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한 私立大學校의 경우를 보자. 學部 學生의 머리수만 해도 208명이다 行政大學院 碩士課程 380명 그리고 一般大學院의 碩士課程 9명, 博士課程 13명이고 보던 우선 머리수만 610명이나 된다. 이것을 學生 10명 對 教授 1명의 비율로 教授需要를 측정한다면 61명이라는 엄청난 교수요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수는 불과 6명이니 美國의 大學基準에 비해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절대부족수의 교수요원을 갖고서도 碩·博士學位를 배출하고 있으니 어떻게 不實한 學位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학생수를 줄이든지 교수요원을 증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經濟나 商品에만 國際競爭力이 필요한 것처럼 흥분하고 논란을 거듭하는데 學問이야말로 國境이 없는 競爭이 지속되고 있는 現 文明의 한 단면이다. 당장 國際收支에 無關하고 外債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學問의 國際的 競爭은 우리가 한 치라도 소홀히 하던 할수록 긴 장래의 안목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國力을 좀먹어 들어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大學生 한 사람을 소홀히 졸업시킨 결과는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를 落後케 하는 源泉의 原因이 되고 있음을 自覺해야 된다. 資格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고 앞

아서 온갖 權謀術數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 학과나 그 학교는 죄 없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결과가 되며 이것이 쌓이고 쌓이던 우리 國家社會의 각 분야에서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는 惡循環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歷史에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다. 따라서 罪 중에 가장 큰 罪는 教育에 있어서의 不實이라 하겠다. 즉 實力 없는 학생을 졸업시키는 일이다. 學生도 學校도 教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된 責任意識이 있어야 하겠다. 韓字는 解放 이후 우리나라가 이처럼 혼돈되고 무질서하게 된 가장 큰 原因 중의 하나가 雨後竹筍처럼 난립한 各種學校가 無資格한 教師에 의해 無資格한 學生을 사회로 배출시킨 것이 아닌가 가끔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自動車 運轉연습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不正한 方法으로 운전터허를 따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 치어 죽을 確率이 日本보다 70배 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운전자 자신이 아직도 운전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터허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亂暴運轉 아니 殺人運轉의 횡포가 無資格한 사람들에게 각종 學位를 수여해서 社會 각 분야에서 뒤계 만든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각종 不條理·非理·不實·不正·腐敗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따라서 教授要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교수가 14시간 심지어는 18시간씩 講義하는 한 不實한 教育이 될 수밖에 없음은 自明한 일이다.

4. 教授 質의 問題

우리나라 大學의 歷史는 기껏해야 百年쯤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解放이 된 지 40년이 지났다. 우리가 그 도록 일이 닳도록 원망하는 日本의 韓國統治가 36년이었으니 해방된 후 日帝統治 기간보다 더 긴 세월이 흘렀다는 예기다. 日帝가 우리를 동치한 것이 짧았다는 예기가 아니라 해방이 되고 펴 긴 시간이 지났다는 예기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大學은 그 量的인 면에서 대단히 쟁

쟁했다. 해방 전에는 전문학교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도 채 못 되던 大學數가 지금은 전문대학은 제외하고도 正規 4年制 大學만 100개가 넘고 있다. 더우기 그 學生數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에만 십수만 명의 대학생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碩士와 博士의 數도 점점 늘어만 간다. 이처럼 많은 碩士·碩士·博士를 교육시키는 우리 教授의 質은 어떠한가 한번 견경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큰 아픔의 歷史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批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고하는 1만 수천 명의 教授의 質을 어떠한 客觀的 基準에 의해 調査·研究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質이 어떻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물론 社會的으로는 비록 단편적이거나 教授의 質에 대해서 어떠한 評價가 나와 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市非의 評判이 전연 근거가 없거나 또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다. 비록 科學的 根據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회에서 一般的으로 수용되는 評判이라던 일단 일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教授全體를 어떻다고 말하기는 적 곤란하다. 그렇다고 대학에 있어서 圖書館의 藏書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基本要素인 大學教授의 質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탐구만 하고 지낼 수는 없고 또 지내서는 안 된다. 韓字는 여기서 현재 우리 교수들의 質이 어떻다는 斷定的 結論을 낼만한 實證的 資料를 갖지 못한 터이기에 교수의 질에 대한 評價는 여기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다만 教授의 任用節次가 갖는 問題點을 들어서 교수의 資質向上과의 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모든 人事는 그 充員過程을 보면 그 人事의 質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大學教授 充員過程을 보자. 원래 대학교수란 職業은 크게 두 가지의 機能을 갖는다. 즉 하나는 研究요, 다른 하나는 教授다. 이 중에 어디에 더 큰 比重을 두느냐 하는 것은 大學의 種類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碩士 위주의 대학에서는 教授가 연구보다 더 중요하고 碩士·博士學位를 수여하는 대학에서는 研究가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

론 교수와 연구는 相互不可分離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연구가 없는 교수는 오래 가지 못하고 교수가 없는 연구는 연구의 擴散을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학을 研究中心大學과 教授中心大學으로 機能에 따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어찌 되었든 大學教授의 充員過程에서 무엇보다 問題가 되는 것은 教授要員 지방생이 이러한 研究 및 教授의 能力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 수 없다는 건론이다. 學位論文을 우수하게 썼다는 것이 앞으로 그가 계속 좋은 논문을 쓰리라는 保障은 못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大學院 學生으로서 前연 教授(즉 가르친) 經驗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교수가 될지 즉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지 혹은 그 正反對로 매우 無能한 教授가 될지의 判가를 역시 아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唯一한 길이란 다름 아닌 試補期間의 設定이라고 하겠다. 즉 일정한 客觀的 資格을 갖춘 人士를 채용하기는 하되 그 채용 결정이 平生職에의 決定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時限附 試補任命이어야 한다. 즉 학위 받은 후 첫 3년 동안은 매년 契約을 맺는 任命이어야 하겠다. 따라서 첫해의 成果가 좋으면 2년째 契約을, 2년째 성과가 좋으면 3년째 契約으로 올라가고 3년째까지의 綜合評價에서 그 候補의 將來性이 그간의 성과로서 입증되던 平生職(tenure)을 주는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再任用制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로서 教授要員은 그 初期에서부터 拔擢·선발하는 道에 特色이 있다. 教授任用制는 이미 그러한 初期 選別過程을 거친 副教授·正教授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첫째는 이미 그런 初期選別의 效果를 기대할 수 없고, 둘째 이미 安着된 良心的 教授들에게 불필요한 不安感을 주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政治的·個人的 目的에 惡用되지 않는다는 保障이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平生職 制度의 도입은 대학교수의 自主性·責任性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不適格 教授要員을 늦기 전에 選別·隔離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大學教授要員들은 이

試補期間을 거쳐 비단 學問的 資質뿐만 아니라 人格的 品位까지를 포함한 綜合的 評價를 거친 후 教授職에 임명되어야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充員制度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불필요한 誤解와 逆機能만 일으키는 充員制度가 아닌가 싶다.

둘째로 現 充員過程에서 이른바 學科教授의 全員 贊成이 전제되는 이 제도 역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美國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學科의 人事는 그 학과와 人事委員會의 추천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이 最終的인 것은 결코 아니다. 美國 學科의 운영이 自治的이면서도 學長이나 總長의 牽制를 받는 것은 학과가 自律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 전체의 利益에 위배되는 危險을 할 경우를 위해서 생긴 것으로 日常時에는 학장이나 총장이 학과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放任해 두다가도 가끔 학과에 派閥이 생기고 학과가 어떤 특수한 緣故主義에 의해 지배되는 듯한 기미가 보이던 그 학과는 단호히 學長 또는 總長의 權限으로 완전히 새로운 학과로 탈바꿈하게 만드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예컨대 어떤 학과가 그 동안 어떤 特定한 人物에 의해 너무 오래 지배받아서 그 학과 教授陣이 質적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學校發展에 지장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외부에서 그 학과의 再建(?)의 임무를 띤 學科長을 모셔다가 그에게 일정한 교수의 任命權을 주어서 舊勢力을 弱화시키는 이른바 아카데미 指導力(academic leadership)을 행사한다. 이러한 일은 빈번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아무리 좋은 有名한 大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組織體인 만큼 이러한 良貨를 구축하는 惡貨가 단연하게 되던 이러한 現象을 과감히 교정하는 權限이 학장이나 총장에게 주어져 행사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들리는(사실 여부는 알 길이 없는 것이나), 총장도 어쩔 수 없는 學科 教授들의 강한 勢力現象(?)은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발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에 總長 자신이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情實人事를 誦託할 경우 學科教授 全員 贊成의 원칙은 이러한 非教育者的인 총장의 인사 간섭을 저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총장의 뜻이 閉

鎖的이고 歸屬主義的인 학과의 多數 칭포를 종식시키는 學科 및 學校發展을 위한 참신한 교수 의 迎入을 바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學團의 自律 化를 위해서 마땅히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教授의 充員過程이 이처럼 여러 단계에 걸친 均衡과 牽制의 원칙에 의해 어느 누구 한 個人이나 學科가 專橫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民主主義가 서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多元的 社會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權威主義的이고 高度의 同調을 요구하는 獨一主義的 社會에서는 꼭 어려운 것 같다. 원래 學團의 發達이 이러한 多元的 意識 構造 속에서 더 신속히 발달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은 權威主義的 秩序意識에 사로잡혀 있는 傳統社會에서는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져 온 터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은 學團의 百花가 滿發한 것을 원하기보다는 行政의 便宜 爲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모든 學科와 大學들이 '조용한 것'을 원한다. 옳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기를 원하는 풍토가 언제부터 우리들의 意識 속에 그처럼 깊이 파고들어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 우리의 대학은 조용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조용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學科의 일이나 大學의 일에 대해서도 '보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하기 일쑤다. 따라서 어떤 학과에서 新規採用을 公開的으로 할 때 생길 수 있는 雜音이 무서워 조용히 은밀히 채용한다든가 또는 缺員이 있으면서도 充員을 몇 년씩 지연시키는 일이 없지 않은 이유는 이 모두가 大學이 대학의 本來任務인 自律的이고 責任 있는 教授要員을 충원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누이 좋고 배부 좋은 식'의 無事安逸主義으로 타락한 증거라고 하겠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만 원해서는 아니나, 1977년 美 콜롬비아大學 政治學科에서 國務長官을 지낸 키신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自主性은 몹시 아쉬운 대학의 자세이다. 或者는 키신저의 배척이 콜롬비아大學의 惡貨가 키신저와 같은 良貨를 구축한 것으로 誤解하는 일이 있은가 해서 굳이 사

족을 단다면, 키신저를 배척하는 이유가 그의 學團的 業績에 대한 否定的 評價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學者로서의 良心에 대한 否定的 評價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 學科의 自主性은 가혹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경우 자기보다도 더 우수하고 장래성이 있는 학자를 영입하기를 꺼리는 風土가 우리 주변에 없지 않음을 그저 개탄만 해야 하는지!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적어도 대학의 教授要員의 充員이란 단순히 人力의 需給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대학의 性格을 결정짓는 마치 敎育에서 司祭를 선발하는 것과 같은 엄숙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그 과정은 되도록이면 多元的이고 自主的이었으면 한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갑작스러운 學科와 學生數의 팽창으로 인해 그 동안 무리한 教授人員의 擴充이 이루어져 왔음을 自他가 公認한다. 이것의 해결은 현행 教授再任用制로서는 그 實效를 거둘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미 助教授 이상 임용된 교수들을 再任用過程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교육여건하에서는 오히려 逆效果만 자아낸 따름이다. 문제는 향후 교수요원의 充員過程을 어떻게 合理的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앞으로 우리의 대학이 명실공히 世界의 大學으로 멀어 나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大學設置基準令의 遵守가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수요원의 適正한 確保가 시급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어도 現 大學의 教授要員의 倍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던 아무리 附鎖的이고 歸屬主義的 派閥이 지배하는 학과일지라도 참신한 교수요원의 充員 여하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學風을 振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의 教授要員 充員政策이야말로 우리나라 學團의 쇄신을 좌우한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겠다.

5. 學生의 學習態度

大學은 훌륭한 教授와 적절한 圖書館의 藏書만 갖추었다고 해서 대학다운 대학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은 質 좋은 學生이 있어야 한다. 좋은 學生이 없는 곳에 아무리 훌륭한 教授와 圖書施設이 완비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研究機關은 될 수 있어도 高等教育機關인 大學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학이 대학답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學生을 뽑아야 한다. 물론 學力考査 高得點者가 좋은 학생임에는 異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학력고사 고득점자의 90% 이상이 서울大學校에 몰리는 현실에서 나머지 학생은 다 質이 나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대학이 좋은 학생을 擧取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는 것도 실은 이러한 前提下에서 되어서는 일 이리라. 즉 어떻게 하던 더 많은 學力考査 高得點者를 자기 학교로 유치할 수 있을까 하고 온갖 獎學金과 特恩까지 주어 가면서 학생을 誘致하는 것은 어떻게 보던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학력고사제도가 반드시 質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을 구별해 주는 꼭 믿을 수 있는 準據를 제시한다고 믿어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教育心理學者들 사이에도 一致된 意見이 없다. 더러는 學力考査 高得點者가 반드시 좋은 학생이라고 하는가 하던 더러는 비록 학력고사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質이 좋은 학생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전국 質이 좋고 나쁜 학생의 구별은 學力考査라고 하는 어떠한 成就試驗(achievement test)에서의 점수만으로 판가름하기에는 人間의 能力(human faculties)이 너무도 다양하고 複雜多難하다. 주로 기억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이 그러 하듯 학력고사도 人間能力의 한 斷面만을 볼 때에는 꼭 信憑性이 있는 指標(indicator)임에 틀림없으나 大學生活에 있어서의 성공적 任務遂行 여부로 따질 때 학력고사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能力을 測定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래에 와서 점차 중요시하는 高校의 內申成績 같은 것은 앞으로 더 중요한 학생 선발의 準據가 되어야 하겠다. 필자는 美國 大學에서 學科長을 11년씩이나 맡아 보는 苦役(?)을 치루느라고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成績管理·進學指導·就業알선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들어올 때의 美國의 學力考査(SAT) 성적과 大學入學 후의 성적과의 상관관계, 학교

성적과 大學院 入學 학력고사(GRE, GMAT 등)의 성적과의 相關關係를 經驗的으로 뒤돌아 볼 때 학력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이 반드시 大學成績이 우수하다는 保障도 없고, 또 대학에서의 좋은 성적이 大學院 入學 학력고사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예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 어딘 학생은 대학원 입학 학력고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大學院 進學이 어려웠고, 또 法科大學(미국에서는 대학 4년 졸업자가 입학함)에 進學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명소에 내가 判斷하기에는 능히 大學院 공부나 法科大學 공부를 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學科長으로서 추천서를 특히 잘 써 귀서 입학시킨 것과 대학원도 법과대학도 모두 우수한 성격으로 졸업했던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런 경우에 만일 大學院 入學 當局者(혹은 法大 入學 當局者)의 입학허가 기준이 최일적인 학력고사만을 기준으로 하였더라면 내가 추천한 학생들은 필경 대학원이나 법과대학 진학의 機會를 영영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多樣한 入學基準 덕분에 이른바 학력고사성적에서 失敗(?)한 학생들도 再起(late bloomer)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고사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점수 1,2점에 따라 大學入學이 좌절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 온 우리는 이런 學力考査의 機能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한 機械的 反應을 보일 뿐이다. 이러한 학력고사 위주의 評價制度가 더 위용을 떨치는 것은 대학입학 이후의 이른바 社會에서의 資格試驗도 千編一律的으로 學力考査의 기억력을 중심으로 한 成就試驗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에컨대 國家考試制가 그러하다. 따라서 학력고사 성적이 높았던 학생들이 국가고사에도 많이 붙게 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一般의 觀念은 '머리 좋은 학생=학력고사 고득점자=좋은 대학의 학생' 이런 연쇄적 사고를 갖게 된다.

學生의 質이 좋다는 얘기는 머리가 좋다는 뜻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大學의 研究(research)를 훌륭히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大學의 使命이 研

究와 教授에 있는데 실은 研究는 머리도 미리지만 꾸준한 努力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의 성공은 10%의 머리와 90%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의 科學者들이 아직 노벨상을 타지 못한 큰 이유로 우리의 氣質 중에 꾸준히 외곶만 파는 持久力의 부족을 많이 든다. 필자는 自然科學을 잘 모르나 人文社會科學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자가 국내외에 그렇게 많으면서도 社會科學에 있어서 이렇다할 저술이 없는 것은 우리네 屬性에 꾸준한 忍耐力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우리가 대학에서 받아들여야 할 학생의 基本的 性格 가운데 이러한 노력의 성공을 과거에 전연 制度的으로 評價하는 일이 없었음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훌륭한 인간의 資質을 大學入學 決定過程에서 制度的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은 아직도 氣質의 記憶力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우리 교육의 學生成果評價方法에서부터 기억력 위주의 평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교수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다른 방법 즉, 예컨대 팀 페이커를 중심으로 한 평가라면 학생들은 좀더 研究 중심의 학업에 치중할 것이다. 한 학기의 짧은 시간 동안에 교수가 승인한 주제를 스스로 文獻調査나 現地調査를 통해서 사실을 구명·분석·해석·제안하는 態度야말로 學問의 發達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教育이 우리는 겨우 大學院에 가서야 시작된다. 이것은 너무 늦다. 적어도 대학에서부터는 시작되어야겠다. 歐美에서는 初·中·高等學校에서부터 팀 페이커를 쓰는 버릇을 길러 준다. 이러한 팀 페이커는 評價하는 교수로 하여금 그의 일을 훨씬 민첩하게 만든다. 만약에 評價方法이 한두 시간씩의 中間考査나 學期末 試驗에 의존한다면 비록 시험문제의 내용이 客觀式이 아닌 에세이(essay)식의 시험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評價가 꼭 간접하고 발생의 소지도 적다. 따라서 교수들은 이러한 방법이 적은 方法의 評價를 자연히 選好하게 된다. 반면에 팀 페이커의 평가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첫째, 읽어야 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보통 學期末考査 試

驗紙量의 10배 내지는 15배가 되기 일쑤다. 둘째, 팀 페이커의 내용에 어떤 文獻의 不正直(표절: Plagiarism)이 있었는지의 檢證이 필요하다. 이것은 적어도 學生들이 引用한 거의 모든 文獻에 대한 익숙도를 前提로 하는 것이어서 평소 研究를 게을리 한 教授에게는 여간 負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로 팀 페이커의 내용 전체에 대한 評價가 따르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학생들의 勞苦에 同情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후한 점수를 줄 가능성이 많은 함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엄격하고 일관된 水準을 維持하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學生評價의 方法이 이러한 研究中心의 평가로 바뀌질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의 이른바 학력고사에 의한 優劣의 問題는 상당히 완화될 소지가 많다. 문제는 일단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하도록 動機를 부여하고 지도하느냐가 학력고사의 뒷 점 점수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美國의 경우 학력고사 1,600점 만점에 이른바 아이비 리그(Ivy League)에 들어 가려면 최소한 1,45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90% 이상의 높은 成績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340점 만점에 300점은 88%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울大學校 入學生은 미국의 아이비 리그 大學에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比較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많은 머리 좋은 친구들이 아이비 리그를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능히 아이비 리그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州에서 가장 좋은 州立大學校(각 州마다 州立大學이 많이 있다)에 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州立大學의 미국 학력고사 커트라인은 1,100 내지 1,200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기 州에서 학력고사(SAT)점수 1,100내지 1,200점이던 유명한 버클리 소재의 캘리포니아大學校(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나 미시간大學校(University of Michigan at Ann Arbor)에 능히 입학이 허락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美國의 대부분의 專門職(醫師·辯護士 등)과 大學教授要員은 이러한 州立大學校出身으로 충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學力考査

成績이 약 250점밖에 안 되는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專門學校와 大學教授委員會 배출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大學教育이 대학 입학 이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던 학력고사 250점짜리를 갖고서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며 대학교수도 나오게 하는 美國의 制度가 不實醫師·不實辯護士·不實教授들을 만들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250점짜리든 무엇인지 모르게 잘 가르쳤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에 우리는 250점짜리이기 때문에 별 불일 없는 產物로 사회에 배출시켜도 아무도 객하거나 탓하지 않는 社會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회생되고 있는 學生들이다. 이들이 비록 250점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들도 사회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教育시킬 의무가 우리 教育者들에게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 大學은 전체 學力考査 受驗者 67만여 명 중에서 불과 0.37% 정도에 해당하는 2,568명의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 교육 못지 않게 200점에서 300점 사이 득점자들의 大學教育이 중요함을 동감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들어온 대부분의 大學生들은 이른바 一流大學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劣等意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대학의 教授方法이나 評價方法 역시 고등학교 시절의 그것과 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의 어떤 發展이나 변모를 쉽게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저 教授가 시키는 대로 講義를 듣고 試驗을 치르고 한 뒤 졸업한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도 마찬가지다. 採用 후의 人峯에 있어서 昇進이나 補職도 구태의연한 學校別로 또는 이른바 人脈으로 통하는 歸屬의 工作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자신의 能力이나 努力은 별로 아랑곳한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社會生活에서 미처리게 경험한 부모는 자기 자식만큼은 결단코 一流大學에 넣고 말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육의 一流病的 惡循環은 계속된다.

필자는 필자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一流病的 惡循環을 단절시킬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大學自體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가 일류가 못 되는 대학생들을 계속해서 사회에 배출해 내는 한 一流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던 어떻게 해서 일류병을 차단시킬 수 있겠는가. 소위 一流가 아닌 대학들이 일류가 되는 大學生을 배출해 내야겠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것은 말은 쉬우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던 다음에 大學教育의 內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6. 大學 教科內容의 革新

우리는 過去 40년간(적어도 解放 이후) 大學을 우리의 힘으로 運營해 왔다. 우리 힘으로 운영해 왔다는 얘기는 우리 教授들에 의해 우리가 작성한 教科目 內容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가 해방되던 당시 우리의 大學人力은 극히 미미했다. 日本 사람들이 주로 중요한 責任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의 教科目 編成이라든지 책임 있는 行政을 해 볼 機會가 없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돌아가게 되고 자연히 우리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教授도 되고 教科目도 작성하게 되고 講義案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해방 직후의 우리 대학은 일본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때는 우선 번용으로 그럴 듯했을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教科目的 編成과 講義案의 作成이야말로 大學教育의 內容을 송두리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학에서는, 적어도 社會科學 분야에서는 아직도 사회과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 外國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移植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다. 적어도 政治學이나 行政學에 있어서는 그리하다. 마치 美國의 어느 대학에 다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教科目的 編成이나 그 교과목의 內容이 거의 전부 美國이 素材가 되어 이루어진 내용의 책과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년간의 大學, 2년간의 大學院教育을 통해서 주로 美國의 視角(an American perspective)에서 쓴 文獻들을 가르친다. 그 대부분은 制度(insti-

tutions)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이해되고 우리와 같은開發途上國에의 移植(transplant)이 쉬운 듯 착각하기 쉽다. 이른바 行態(behavior)에 관한 이론도 임격히 보면 그것은 그 研究의 素材가 주로 美國人과 美國 社會였지 곧명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行態論의 一般理論을 몹시 열심히 배우고 환용하려고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外國의 이론이나 學說은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데 하나의 方法論的 準據(reference)가 되는 것 이상은 되지 말아야 할데 현실은 그 正反對다. 外國의 것이 資料에서 너무 많고 우세하다 보니 우리 것에 대한 基礎的 研究마저도 진척이 안 된다. 물론 우리 것에 대한 研究不振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學術支援費의 부족도 큰 原因이 되고 있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위의 서두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의 일반적인 學問的 選好傾向인 哲學的, 抽象的, 普遍的 理論에 대한 선호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필자가 전공하는 行政學 분야만 해도 韓國行政學은 별로 人氣가 없다. 그것은 敎授間에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필자의 미국 경험과는 정반대되는 경향이다. 그들의 행정학은 전부 美國行政論이다. 비단 行政學 理論만 미국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組織論도 전부 미국의 조직을 논하는 것이요 財務나 人事論도 모두 美國 制度의 說明이나 評價다. 겨우 比較行政이나 發展行政이라고 해야 美國이 아닌 나라의 行政을 논하는 것이 그들의 정상인데 우리는 그 정반대다. 그러니 행정학을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수가 韓國 行政의 實際를 전혀 몰라도 널리(?) 양해해 주는 風土가 우리의 行政學界다. 특히 文化와 傳統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 行政이라고 하는 現象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行政現象에 대한 基礎的이고 本質的인 調査·研究가 先行되지 않고는 그 많은 外國을 素材로 한 研究의 結實이 우리나라의 行政現象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한걸음 나아가 改善을 하려고 하는 努力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먼저 美國人 學者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나라의 社會科學界 적어도 行政學界에 있어서 韓國 行政現象에 대한 歷史的·制度

的·行態的 研究가 전연 되어 있지 않다는 예기는 결코 아니다. 사실상 많은 碩士·博士論文이 韓國의 行政을 素材로 하여 쓰여졌고 또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줄 안다. 문제는 이러한 單行本的(monographic)인 研究들을 韓國 行政을 구성하는 敎科目的 內容으로 하나씩 들쭉 定着시키는 작업이 未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行政學의 敎科目的은 美國 行政에 대한 一般理論을 그 주축으로 하고 그 내용도 美國의 行政을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두말한 것도 없이 外國의 制度를 공부하는 比較論이나 地域學(area studies)을 우리 敎科課程에서 없애자는 예기는 결코 아니다. 다만 그 主客이 바뀐 듯한 우리의 자세를 나무랄 뿐이다. 운바른 남의 이해는 우리 것의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적어도 自然科學이 아닌 社會科學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美國 大學에서 16년간 가르치면서 敎科目的의 명칭은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간에 그 素材는 전부 美國 社會를 다루는 것이었음을 기억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官學協同이란 말이 별로 새롭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지극히 당연한 行政學의 本質로 이해되는 것을 보았다. 더욱이 近年에 와서는 이른바 州間人事法(Intergovernmental Personnel Act)에 의해서 聯邦政府와 州政府, 州政府와 地方政府, 聯邦政府와 地方政府뿐만 아니라 이 各級政府와 大學間의 人事交流가 한창이다. 즉 大學敎授가 자기 대학을 떠나서 어떤 級의 政府에 가서 1년간 實務를 통한 研究를 하는 동안 政府의 公務員이 대학에 와서 그의 實務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講座를 맡는 것을 많이 보았다. 조금도 이상할 것도 不自由스럽지도 않은 實務와 學問間의 有機的 交流인 것이다. 여기서 설익은 理論에 좀더 具體的 經驗이 뒷받침되고 體系가 부족했던 實務에 좀더 理論의 根據를 제공하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목격했던 것이다.

일찌기 西獨 Gestalt 心理學의 선구자 Kurt Lewin은 '가장 理論的인 것은 가장 實際的인 것'이라고 갈파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社會科學이 당연한 가장 중요한 敎訓이 아닌가 생각되어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